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 한국 종교계, 부처님오신날 · 부활절 행사연기

한국의 종교계가 4월로 예정된 기념행사를 잇따라 연기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30개 불교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8일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5월30일로, 연등회도 5월23일로 변경한다.” 고 밝혔다. 당초 조계종을 포함한 불교계는 4월 8일 광화문광장 대형 장엄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24-26일 연등회, 30일 봉축 법요식을 치를 예정이었다. 불교계는 이와 함께 4월30일 전국 사찰 1만5천여곳에서는 ‘코로나 19 극복과 치유’ 를 위한 한 달 기도를 시작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은 고유 명절이며, 연등회는 무형문화재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데 매진하고자 연기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모든 인류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발원하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 이라고 덧붙였다.

개신교도 부활절 거리 퍼레이드 등 행사 일정을 연기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부활절인 4월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 예정됐던 ‘이스터(부활절) 퍼레이드’ 를 두 달 연기한다.” 고 밝혔다. 이스터 퍼레이드는 전국 교회와 학교, 단체가 참여해 초교과 성격으로 열리는 행사다. 개신교인을 포함한 시민 30만명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교총은 같은 날 광화문 새문안교회에서 예정된 부활절 연합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예배당 오프라인 연합예배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도 6개월 뒤인 9월28일로 연기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일 “부활 대축일 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권유하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미사 전례에 참석하면 좋겠다.” 고 말했다.



### 행복을 모르는 부자 (누가복음 12:13-21)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를 확장하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는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행복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신령한 것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재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영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실체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육신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위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도 누려야만 합

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삶의 조건을 일반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땅 위에서 누리는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을 행복의 조건으로 인식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의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한 것입니다.

둘째는 만족을 아는 마음입니다. 만족이 있는 마음이라야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의 하나가 평안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이 없습니다.

셋째는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재미있게 별어서 재미있게 소유하고 재미있게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생략되어버린 불필요한 재물을 추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지혜입니다. 남기고 가는 것은 유품입니다. 유품을 남기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은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적극적인 사고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는 열린 사고를 말합니다. 사고가 닫혀 있으면 좋은 일

이 와도 그 사람한테 오면 나쁜 일이 됩니다. 소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앞에 한 걸음 오면 자기도 갈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는 남들이야 오든 안 오든 자기는 한 걸음 나아가는 행동과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 실천은 직결됩니다. 실천이 없다는 것은 사고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땅위의 행복을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왜 불신자가 추구하는 행복을 우리도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불행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 영생을 누리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의 부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삶을 결코 흉내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 이용호 목사 -

### 타운뉴스 업소록

# “리스팅 신청하세요!”

##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제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